

# 백승근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방역·운영 안전에 총력”

## - 29일 김포 광역버스 차고지 찾아 방역실태 점검·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지원

-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29일(목)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방역을 시행 중인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업체로부터 매일 실시 중인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용객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시행에 감사드린다”면서,
  - 광역버스 방역 현장을 둘러본 뒤 “연일 폭염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 특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이 없도록 차내 냉방에도 세심하게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김포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가 8월 중에는 운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중립 어젠다와 관련하여 2층 전기버스가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 7. 29.

국토교통부 대변인